

3/13/16

설교 제목: 베드로의 회복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 복음 21:1-19

- (요 21: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절관주** 요 21:14
- (요 21: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 (요 21: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절관주** 눅 5:5
- (요 21: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 (요 2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절관주** 눅 24:41
- (요 21: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 (요 21: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걸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절관주** 아 8:7, 눅 7:47
- (요 21: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 (요 21: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절관주** 요 18:18
- (요 21: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 (요 21: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 (요 21: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 (요 21: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 (요 21: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절관주** 요 20:19, 요 20:26
- (요 21: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 (요 21: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 (요 21: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 (요 21: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 (요 21: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절관주** 요 12:33, 요 18:32, 빌 1:20, 벧후 1:14

요한 복음은 20 장에서 이미 끝난 것 같았는데 마치 부록같이 '그 후에'라는 말로 21 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을 맺는가 싶더니 21 장 한 장을 더 할애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 복음의 저자가 베드로와 수제자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였던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이 사실이 참으로 흥미롭게 받아들여 집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어머니까지 부탁했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종 사촌 지간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 앞에 나서기도 잘하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헛점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요한과 함께 꼭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고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전에서 3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이것을 목격한 요한은 속으로 '베드로 너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이런 마음 속의 생각을 꿰뚫고 계시기라도 한듯이 요한의 목전에서 요한의 생각과는 달리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사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다 목격한 요한이 무슨 생각을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당신이 수제자라고 세웠던 자가 면전에서 자신을 배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죽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와 대면하신 것입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를 다시는 보지 않던지 보더라도 말로라도 한방 먹여 주어야 직성이 풀렸을 것입니다.

"see, 네가 모른다고 했던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호기심 많고 세심한 성격의 요한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유심히 지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어 마땅한 죄를 덮고 그가 사로잡혀 있을 죄의식에서 해방시키고 오히려 사명까지 주십니다.

이 사건을 목격하는 순간 요한은 예수님에게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솟구쳐 올랐고 이분은 과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격한 나머지 자신의 한 목숨 다 바쳐 예수님을 섬길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있었기에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간과한 이 사건을 특별히 마음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으며 두 번째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앞에 두 번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게 된 연유는 이렇습니다.

(요 21: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 21: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요 21: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 번씩이나 목격했으면 주님이 살아 생전 당신이 죽은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생각나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 세상에 뛰어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평소에 말하던 대로 그는 죽은지 사흘만에 다시 사셨다” 소리쳐 전하고 증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선두로 7 명의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멍합니다.

그저 주님이 자신들 곁에 계시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져 자신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죽을 병이 치유되는 등의 믿기 힘든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해지고 고아와 같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강박 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속히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서 안절부절 하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본 애굽 사람들이 하던 짓거리를 생각해내고 그들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춤추고 예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지금 베드로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지 막막하고 불안 초조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요한 야고보 도마 나다나엘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낚습니다만 한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빈손처럼 좌절되고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자의 삶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 찾아 오십니다.
그러나 이미 눈이 어두워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 보지 못합니다.

(요 2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 세상에 다시 나가보니 열매가 있더냐? 기쁨이 있느냐? 만족이 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 21: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주님을 알아 보고 베드로에게 알려 줍니다.

제자들이 모여 들자 예수님은 그동안 마음 고생을 하고 밤새워 고기 잡느라 지쳤을 제자들에게
준비한 떡과 물고기를 구워 먹이십니다.

이 장면이 언제나 제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일장 연설을 했을 것입니다.

“너네들 어떻게 그렇게도 내 말을 못 알아 듣느냐? 그래 백번 양보하여 내 말은 이해 못했다고 치자, 그런데 너네가 사람일진대 어째 그리 의리도 없더냐? 특별히 베드로, 너는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건만 어떻게 그런식으로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섭섭해도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고 아무 말씀도 안하십니다.

그저 마음 고생, 몸 고생으로 힘들었을 제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서기 좋아하는 자신만만 했던 베드로가 전과 다르게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말을 거십니다.

(요 21: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전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까지 유효한지, 예수님이 당신을 배반한 자신을 앞으로 계속 사용하실지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건 고사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미안해서 눈맞춤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목양자라고 전에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요 21: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물으셨을 때는 안도하며 좀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는 불안하여지고 근심이 됩니다.

(요 21: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이 질문을 받으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이 오버랩되었을 것입니다.

(마 26: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마 26: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마 26: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마 26: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마 26: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마 26: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 26: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통곡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가슴으로 눈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비록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지라도,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이대로 놓을 수가 없단다. 그러기에 이렇게 내가 널 찾아왔잖니? 모든 것을 다 잊거라. 과거는 과거지. 우리 앞으로 함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 주마. 너는 이제부터 내가 부어 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한다. 내가 실패한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일으켜 세워준 것같이 너도 실패하고 좌절한 영혼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한다. 나는 애초부터 그 일을 위해 너를 불렀단다. 그 영혼들을 너에게 맡긴다. 부탁한다”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목양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은 주님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연이어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시작과 마지막을 다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 21: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종국에는 너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고 감동된 베드로는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했고 죽기까지 영광 돌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영광 돌리는 일은 은혜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옛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은 여러분은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속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가르치며 보살피는 일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